

홍상수 '소설가의 영화' 베를린영화제 은곰상...3년 연속 수상

홍상수 감독이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3년 연속으로 수상했다. 홍 감독은 16일(현지시간) 제72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27번째 장편 '소설가의 영화'로 심사위원대상(은곰상)을 받았다. 2020년 '도망친 여자'로 감독상, 지난해 '인트로덕션'으로 각본상을 받은 데 이어 3년 연속 수상이다.

'소설가의 영화'는 소설가 준희가 잠적한 후배의 책방으로 먼 길을 찾아가고, 혼자 산책을 하고, 영화감독 부부와 배우를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소재다. 영화는 잠적한 후배의 책방으로 먼 길을 나선 소설가 준희(이혜영 분)를 따라간다. 준희는 혼자 타워를 오르다가 하면, 영화감독 부부를 만나고, 공원을 산책하다 여배우 길수(김민희)를 만나 함께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설득한다.

영국 영화 전문매체 스크린데일리는 "홍상수 감독, 항상 다르다"는 말이 홍 감독의 영화에 적용되는데, '소설가의 영화'는 작지만 놀라운 형식적인 반전과 많은 장난기가 팬들을 행복하게 할 것"이라며 "장난스러운 풍자극"이라고 평했다.

이번 수상으로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3년 연속으로 은곰상을 수상한 홍상수 감독은 세계 3대 영화제 중에서도 유달리 베를린과 연이 깊었다.

그가 이 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받은 것은 김영호, 황수정 주연의 '밤과 낮'(2008)이 처음이다. 이후 '누구의 딸도 아닌 해원'(2013), '밤의 해변에서 혼자'(2017), '도망친 여자'(2020), '인트로덕션'(2021), '소설가의 영화'까지 총 6차례 진출했다.

경쟁 부문에 초청된 영화들은 최고상인 황금곰상을 비롯해 심사위원대상, 감독상, 연기상, 각본상 등으로 구성된 은곰상을 두고 경쟁한다.

매년 약 20편의 영화만 경쟁 부문에 진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베를린의 '홍상수 사랑'은 특히 최근 들어 남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홍 감독이 경쟁 부문에 초청된 6편 가운데 4편이나 트로피를 거머쥐었다는 점도 눈에 띈다. 모두 다른 분야에서 골든글로브 상을 받았다. '밤의 해변에서 혼자'는 배우 김민희에게 은곰상 여우주연상을 안겼다. '도망친 여자'는 은곰상 감독상을, '인트로덕션'은 은곰상 각본상을 받았다.

이날 홍 감독이 받은 심사위원대상은 이름 그대로 영화제 심사위원단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한 작품 중 하나에 수여한다. 황금곰상에 이어 두 번째 상으로 '준우승' 격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비교하면 홍 감독의 영화는 베를린국제영화제와 함께 세계 3대 영화제로 꼽히는 칸국제영화제, 베네치아국제영화제로부터는 다소 주목을 덜 받아왔다.

은곰상만 4번... 유달리 베를린과 인연 깊어 칸·베네치아에선 경쟁 부문 수상 없어 잠적한 후배 책방 찾아가는 소설가 이야기

사실 베를린영화제보다 먼저 그의 작품성을 알아본 건 칸영화제였다.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2004), '극장전'(2005) 등 홍 감독의 초기 작품이 경쟁 부문에 진출했다. 이후 몇 년간은 소식이 없었으나 '다른 나라에서'(2012), '그 후'(2017) 등이 경쟁 부문에 진출했다. 하지만 끝내 수상은 불발됐다.

'하하하'(2010)로 비경쟁 부문 상인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 대상을 한 차례 받은 게 전부다.

베네치아영화제에서는 새로운 경향의 영화를 소개하는 오리존티 부문에 '옥희의 영화'(2010), '자유의 언덕'(2014)으로 진출했으나 수상은 못했다.

다른 영화제와 달리 베를린영화제가 홍 감독에 잇따라 상을 안긴 것은 영화제의 '정치학'이 작동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베를린영화제는 3대 영화제로 묶이기는 하지만 칸이나 베네치아에 비해 화제성은 다소 떨어지는 편이다.

최근 칸 수상작인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드라이브 마이 카'와 베네치아 수상작인 클로이 자오 감독의 '노매드랜드'가 아카데미 시상식 등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이런 가운데 여러 차례 칸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했지만 상은 받지 못한 홍 감독에 상을 안기면서, 베를린영화제를 대표하는 감독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전찬일 영화평론가는 "물론 작품성도 좋아하겠지만, 3대 영화제는 각자 '우리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감독들이 있다"며 "칸이나 베네치아에서 출대받은 감독들에게 베를린이 상을 주는 식으로 3대 영화제의 정치학이 작동한다"고 말했다.

홍 감독의 3연속 수상은 칸이나 베네치아와 비교해 영화의 장르나 성격에 대한 외연이 넓은 베를린영화제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베를린영화제 기자회견 하는 홍상수 감독



영화 '소설가의 영화' 한 장면

라미란·엄지원, '잔혹한 인턴'서 상사-인턴으로 호흡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경력단절 40대 여성의 복직기

믿고 보는 배우 라미란과 엄지원이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잔혹한 인턴'에서 40대 직장인으로 호흡을 맞춘다.

티빙은 '잔혹한 인턴'에 라미란과 엄지원을 캐스팅했다고 17일 밝혔다.

'잔혹한 인턴'은 인턴으로 복직한 40대 '경단녀'(경력단절 여성)가 정글 같은 사회에서 또다시 버티고, 견디고, 살아남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다.

라미란은 '독종 워커홀릭'으로 승승장구하던 직



라미란(왼쪽)과 엄지원

장에 사표를 던지고 육아에 힘을 쏟다 재취업 전선에 뛰어들고 고해라 역을, 엄지원은 유리천장 격파를 앞둔 상품기획실 실장 최지원 역을 맡았다.

두 사람이 연기 호흡을 맞추는 것은 2013년 영화 '소원' 이후 9년 만이다.

해라와 지원은 과거 직장 동기였지만, 시간이 흐른 뒤 지원자와 면접위원으로 면접장에서 마주하게 되고, 해라가 지원이 제안한 인턴직을 수락하면서 잔혹한 직장 생활이 시작된다.

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 '시를 잊은 그대에게'의 한상재 감독과 '마음의 소리'의 박연경 작가가 의기투합한 작품으로 잔혹한 현실 속에서도 따뜻한 웃음과 공감을 전한다.

/연합뉴스

김민중, 데뷔 30주년 기념 신곡 '긴 밤' 21일 발표

몽환적 분위기 표현한 발라드

가수 김민중이 데뷔 30주년을 기념한 신곡을 공개한다.

17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김민중은 이날 21일 오후 4시 음원 사이트를 통해 싱글 '긴 밤'(Endless Night)을 발표한다.

몽환적인 분위기를 표현한 발라드 노래로, 김민중이 직접 작사에 참여했다.

김민중은 소설가 허승민과 함께 작사한 노랫말에서 과거를 추억하며 느끼는 감정을 담담하고 솔직하게 그려냈으며, 특유의 짙은 음색으로 감성을 표현했다.

김민중은 1992년 3월 '또 다른 만남을 위해'로



김민중

가수로 데뷔한 뒤 '하늘 아래서', '착한 사랑', '하얀 그리움', '아름다운 아픔' 등 이른바 '김민중표 발라드'를 잇달아 히트시켰다.

손지창과 함께 2인조 그룹 '더 블루'를 결성해 '너만을 느끼며', '진구를 위해' 등의 곡을 발표했으며 여러 드라마, 영화에 출연하며 연기에서도 왕성하게 활동해왔다.

/연합뉴스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h2 style="font-size: 2em;">미스트크리너</h2> <p>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p>	<h2 style="font-size: 2em;">더스트크리너</h2> <p>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p>	<h2 style="font-size: 2em;">전기집진기</h2> <p>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p> <p>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p>
--	---	---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